

土種 홍화씨
합형산 토종 홍화씨가 새 품종인가?
● 지리산지역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거 동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身土不二의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9월10일~11월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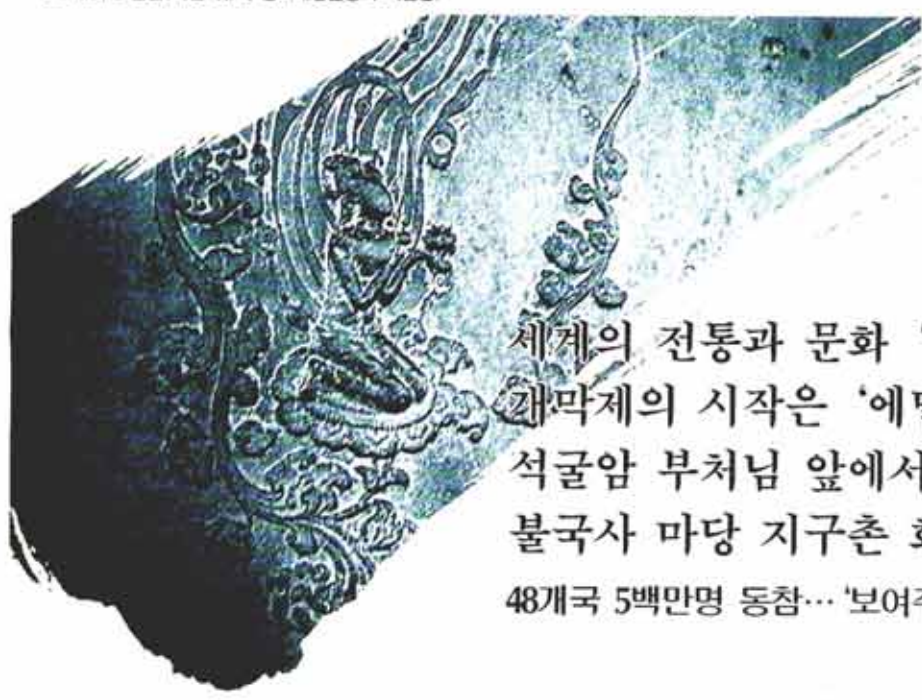
부처님의 땅 경주 통해 인류문화의 꿈 비춘다



◇석굴암 본존불(사진 위)과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상



◇공식 로고



세계의 전통과 문화 '한자리 만남'
개막제의 시작은 '에밀레춤'으로
석굴암 부처님 앞에서 세계인 합장
불국사 마당 지구촌 화합 음악공연
48개국 5백만명 동참... '보여주기식' 지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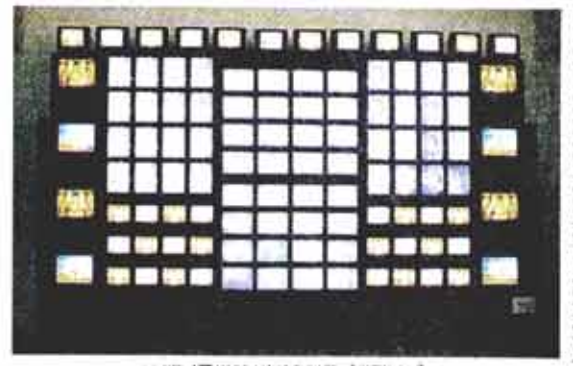


◇공식 마스코트

세계의 눈과 귀가 부처님의 땅 경주로 쏠린다.
10일부터 두 달 동안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새 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정승 융화 창조'를 주제로 세계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한국에 모이는 첫 문화엑스포는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좋은 기회다.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 부처님 앞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합장을 하고 고백장엄한 불국사 마당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질 것이다. 또한 이번 행사를 여는 개막제의 시작이 성덕대왕신종(에밀레춤)의 소리와 '에밀레 춤'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더욱 기대를 모은다. 행사장과 경주 시내 일원에 준비한 불교를 상징하는 각종 이미지도 세계인의 눈과 귀를 끌어 당기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배경에는 불교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주지역 불자들은 이 행사의 주제인 '새 천년의 미소'가 다름 아닌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갈등과 대립의 20세기를 접고 화합과 평화의 21세기를 열어 간다는 것이 이 행사의 근본 취지라는 점에서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는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까지 준비하고 있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도 불교계의 관심 여부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관식 경주시장과 이원덕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경북지역 스님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조직위원회는 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앞으로는 차년대로 문화엑스포를 개최할 방침이다. 때문에 약력역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하는 이번 행사는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로 탄생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세계 48개국이 참가해 5백만 관람객이 다녀 갈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문화잔치에는 살아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재 38점을 비롯 이집트, 인더스 문명을 포함한 세계문명의 진품 3백27점도 선보인다.
그러나 경주지역 문화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문화잔치가 자칫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경우 세계문화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설명회에 참가했던 한 스님은 "이번 엑스포가 불교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데 있어 좋은 계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조직위가 준비하는 행사들은 피상적일 수 있다"며 "불교계가 홍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호 기자 (yuhoo@buddhapia.com)



◇백담존사의 비디오아트 '백담번뇌'

뿐만 아니라 원효스님의 원효화경 사상도 종교와 계층간의 차별과 대립을 넘어 인류화합의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엑스포의 주요 정신 배경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담존사의 작품도 바로 불교 정신의 결집이다. '백담번뇌'를 주제로 한 백담의 작품은 크고 작은 108개의 스크린을 통해 인간 고뇌의 근원과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얘기할 때 불교를 빼 놓을 수 없듯이 한국불교를 얘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도시 경주. 이제 경주는 세계 문화엑스포를 통해 불교사상이 깃든 우리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투명한 창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조계종은 이번 엑스포에 대한 중단의 관심을 표하고 있다. 전국 교구본사에 이번 행사 참가를 권장하고 있으며 불국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것. 기념행사인 오계라 '원효'의 무대가 설치될 불국사는 영산재와 김명동의 산사음악회 등 특별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주요행사

- ◆전야제: 9월 10일 저녁 7시부터 경주시내 전역에서 세계각국의 기원과 엑스포 상징인 수막새 가만 행진, 5개국의 민속공연, 인기가수 공연, 영상쇼, 불국놀이 등이 펼쳐진다.
- ◆개막제: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행사장내 전승의 마당에서 열린다. 에밀레 춤소리와 에밀레 춤, 동자가 17명에게 수여해 전당, 김작사 사물놀이와 공연, 뚝다리 밭기, 전화춤, 전화가, 구지가 합창등.
- ◆공연마당: 불국사-오계라 원효 '9월 18일~20일, 김명동 산사 음악회 11월 초 예정, 영산대제 10월 예정. 엑스포 공연장-사물놀이, 합창, 재즈, 락, 인디, 아프리카 전통춤을 내용으로 하는 인류화합음악축제가 매일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2회 공연.
- ◆새천년의 미소관: 백담존사 비디오 아트 매일 17회씩 세계 영상 상영등.
- ◆세계문명관: 세계대 문명의 발달지와 일기 마야 한국고대문명 등이 놓인 친절한 문화유물전시.
- ◆세계종류관: 30개국의 생활 문화와 풍물 전시. 전통민예품 전통음식과 의상 시연관.
- ◆우정의 집: 일본 중국을 경주시 차대지역의 역사관 살기, 신라인의 지혜관은 석굴암 석빙고등을 복원관은 고구려 고분벽화, 공예품, 고구려산상 모형등 전시.
- ◆국제학술회의: 11월 5일~7일 보문단지내 국제회의장, '문화의 전통과 환경보존' 등 4개분야 학술 발표.

인·터·뷰 경주세계엑스포 조직위원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천년의 미소'로 심는 '세계속의 한국'

"경주세계엑스포는 경주가 간직한 '천년의 미소'를 통하여 '인류의 꿈'을 재현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주세계엑스포 조직위원장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문화엑스포가 세계인류를 화합과 평화의 마당으로 안내하는 매개체임을 강조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이지사는 "우리 전통문화의 상당부분이 불교문화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지사는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과 외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차기대회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말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 준비에 협조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는 이지사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축적한 만큼 두번째 행사때는 유네스코 등의 자문과 고충을 받아 보다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교신자들의 동참에 대한 당부도 잊지않았다.



◇악업지옥. 1710년. 회화사.

"악업-악행의 결과 지옥"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14

지옥형벌

착한 일을 하면 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인간들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늘 죄를 짓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다. 이때문에 종교에서는 죄를 짓고 지옥에 가면 그 형벌이 어떠한지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그려 놓아 경계로 삼게하여 올바르게

선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 그림은 계를 파하거나 살생의 악업을 짓거나 산과 들에 불을 질러 많은 생물을 상하게 한 이가 죽으면 팔팔 끓는 물에서 고통을 당하는 악업지옥의 형벌을 보여주고 있는 불화다.
오른쪽 그림 역시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향불로 태우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성화다. 화림(예천 법화암 주지)



◇프란체스코작 '유향불 지옥'. 1432년. 신 마르치오성당 소장.